

포드·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(리콜)

- 총 4개사 5개 차종 58,180대 자발적 시정조치
- 자동차리콜센터(www.car.go.kr)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(유), 기아(주), 르노코리아(주), 스텔란티스코리아(주)에서 제작 또는 수입·판매한 5개 차종 58,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한다고 밝혔다.

- ① (포드) 익스플로러 31,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.
- ② (기아) 카렌스 23,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(HECU)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.
- ③ (르노) SM3 Z.E. 등 2개 차종 3,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하여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.
- ④ (스텔란티스) 쥘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.

□ 한편,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(PC www.car.go.kr, 모바일 m.car.go.kr / 문의처 080-357-2500)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	정미정 (044-201-3843)
			사무관	송주화 (044-201-3919)